

金 珧 燮 論

金 顯 承*

1927년에 창간한 순문학 동인지 『海外文學』誌와 1931년에 창간한 『文藝月刊』에서 그들 동인의 한 멤버로서 金珧燮의 이름을 처음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당시 우리 나라에다 西歐의 여러가지 새로운 作風을 불어 넣고자 그런 목적으로 모인 海外文學派에 가담하여 그들의 동인지인 전기한 지면을 통하여 시를 발표하고 있었다.

海外文學派의 일원으로서 詩作에 나섰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그의 시의 知的 성격을 암시하여 주는 일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孤獨」이라는 시를 발표함으로써 그의 文學은 점차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로서는 하나의 새로운 성격의 지적인 시로서 시단의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내

하나의 生存者로 태어나서 여기 누워 있나니
한 間 무덤 그 너머는 無限한 氣流의 波動도 있어
바다 깊은 그곳 어느 고요한 바위아래

내

고단한 고기와도 같다.

맑은 情 아름다운 꿈은 잠들다.

그립던 世界의 斷片은 아즐다.

오랜 世紀의 地層만이 나를 이끌고 있다.

* 文理科大學(서울) 敎授

神經도 없는 밤
 時計야 奇異타.
 너마저 자러므나.

(『孤獨』 全편)

1930년대 초엽의 우리 시는, 아직도 낡은 낭만주의의 감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지적 경향이 머리를 들고 있었다. 金玼燮의 『孤獨』과 같은 작품은 그러한 새로운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유가 없던, 그리하여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30년대 지성인의 蠶伏을 감상적인 泣呼가 아닌, 고요하게 가라앉힌 목소리로 독백하고 있다.

「하 間 무덤 그 너머는 無限한 氣流의 波動도 있어」라는 표현을 통하여 아득한 절망 같은 것을 느끼게 하여 주고, 「바다 깊은 그곳 어느 고요한 바위 아래 / 내 / 고단한 고기와도 같다.」에서는 적절한 이미지를 통하여 蠶伏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神經도 없는 밤 / 時計야 奇異타 / 너마저 자러므나.」에 이르러는 표현의 묘미와 함께 고독의 절대狀況을 느끼게 하여 준다.

그러나 이 시를 분석하여 보면, 이러한 장점과 함께 이 시가 가지는 다른 일면을 발견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시뿐 아니라, 이 시인의 모든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 / 하나의 生存者로 태어나서 여기 누워 있나니」와 같은 표현에서 우리는 의심할 나위없이, 이 시인은 어떤 觀念을 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관념적인 것에 액착을 느끼거나 혹은 관념적인 표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사상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시에 있어서 한 시인의 시가 어떤 관념을 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관념의 시가 관념적인 표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시 표현의 본질적 특징인 구체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金玼燮의 시작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특색의 하나는 표현의 관념적 경향이다. 『孤獨』과 같은 초기의 佳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발견케 하고있다.

다음과 같은 그의 愛國詩에서 그의 이러한 특색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地上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려라.

세계에 無數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半萬年の 歴史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쳐 地下로 스며들어 갈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動脈이 되는 生命일지니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끊임없는 生命에서 큰 영광을 찾아

南北으로 兩斷되고 思想으로 分裂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神聖한 곳으로 가리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門이 열리는 날
상징하는 한 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

이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꿈이어니.

(『나의 사랑하는 나라』 전편)

특히 「南北으로 兩斷되고 思想으로 分裂된」이나, 「神聖한 곳으로 가리니」 또는 「상징하는 한 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와 같은 관념적 내지 추상적인 표현이 현저하게 눈에 띄는 구절들이 섞여있는 이러한 시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과 감각으로써 표현한 같은 애국시에 비교하면, 金玠變의 시적 특징의 일면을 새삼 알게 된다.

만일 내가 죽거던 다만 이것을 기억하여 다오
어느 異國의 들 끝에
언제나 英國의 것인 한 무덤이 있다는 것을.

그 흙 속에 빛나는 屍體는 묻혔으리니
英國이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지난 날 사랑할 꽃을 주었으며 거닐을 길을 주었던 그,
아니 英國의 공기를 마시고 그 시내에 목욕하여
그 太陽을 즐기던 英國의 몸이.

그리고 기억하여 다오, 세상의 때 다 떨쳐 없앤
영원을 마음 속에서 고통하는 이 심장이

언제나 어디서나 英國이 그에게 준 이 기억을
 그의 風物을 그의 言語를 그 시절의 행복한 꿈을
 자나 깨나 잊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와 주고 받던 웃음 英國의 봄동산에서
 그 平和한 가슴속에 조울던 착한 마음을.

(R·브룩의 『兵士』 전편)

시 『해바라기』는 金玟燮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 마지막 聯의 두 줄인,

한 줄기로 志向할 높다란 꼭대기의 歡喜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太陽의 祝福을 받는 者

와 같은 표현은, 단테의 抒情詩 『新生』가운데서 현대 미학자 크로체의 절찬을 받은 「가는 줄기의 맨 꼭대기 그 위에서 피는 꽃처럼」과 같은 귀절을 연상케 하는 좋은 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志向한> <歡喜> <祝福을 받는 者> 등등의 용어가 끼여서 풍기게 하는 표현의 흐릿한 抽象性을 말끔이 씻어 버리지 못한 느낌을 읽는 사람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金玟燮의 이러한 표현상의 부분적인 결점을 지적하려면 그러한 결점이나 지적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를 실마리로 하여 金玟燮의 시의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세계에까지 들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끄집어 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대시가 낭만주의적인 풍조를 지양하고 金玟燮이 나올 무렵인 30년대를 즈음하여 주지적인 경향으로 바뀌어가며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3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일어난 주지시의 내용이나 성격은 한결같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다른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金起林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의 시다. 모더니즘의 시가 어째서 주지주의의 시가 되는가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의 내용과 정신을 이루는 사회비평과 문명비평 즉 한 마디로 요약하여 비평성 때문이다. 비평은 지적작업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비평성을 시정신으로 가진 모더니즘의 시가 주지적 경향을 띠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주지적 특색을 드러낸 모더니즘은, 그 표현에 있어서는 자못 비평성을 결여하여 주지적인 특색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표현 수법이나 표현 언어들은 낭만주의의 수법을 개척하지 못한 直情的이고 陳述的인 것들이었다. 金光均과 같은 유능한 시인이 나와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내는 객관적인 냉정한 수법을 창조하긴 하였으나, 金光均의 시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모더니즘의 왕성하고 다채로운 비평이나 풍자의 독특한 활

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단순한 感傷性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인 『互斯燈』이나 『秋日抒情』과 같은 작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장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 편중의 지적 경향과는 반대로 표현면에 있어 처음으로 지적 태도를 보여 준 시인은 鄭芝溶이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의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라 갔구나!

(『유리창』 전편)

이러한 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색은 주관적인 진술을 최대한도로 절약 하고, 시인의 감정을 객관적인 사물이나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묘사의 수법이다. 芝溶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희귀하게도 素月の 『山有花』에서 이러한 수법을 발견할 수 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와 같은 直說의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진달래꽃』과 같은 작품에 비교하면, 『山有花』는 객관적 인사물의 순수한 묘사를 통하여 작자의 현실과 유리된 고독한 심정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주지적인 시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수법의 표현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를 다음과 같은 金春洙의 작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 굶힌 사나이들
 하루의 勞動을 끝낸
 저 사나이들의 억센 팔에 안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온전한 바다.
 물개들과 상어떼가 농친
 그 바다.

(『埠頭에서』 전편)

이러한 시에서는 聯想作用으로 얻은 이미지만으로 의식과 사물을 작자가 의도하는 대로 결합시키고 있다.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섭을
 즈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왔더니
 동지 설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냇하며 비끼어 가네.

(徐廷柱의 『冬天』)

이와 같은 徐廷柱의 적지 않은 시편들에서도 같은 계보의 시를 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들이 왜 주지적이냐 하는 이유도 역시 비평성에 있다. 이러한 수법은 과거의 음악성과 웅변벽을 중심으로 하던 낭만주의 시에 대한 표현 수법상의 비평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낭만주의 시를 정열의 불꽃이라면, 이러한 시들은 그 불꽃을 이미지로 식혀 지성의 견고한 보석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시들을 살펴보면, 모더니즘과는 반대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다분히 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 시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거나 공허하다. 徐廷柱의 경우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芝濬의 세계는 단순한 감정이나 감각밖에 더 찾아 볼 것이 없는가 하면, 春洙의 전제한 바와 같은 시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드나 따지고 보면 결국 공허하다. 내용 따위는 별로 문제삼지 않고 오로지 예술적인 형식 구조에만 몰두하는 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다이즘이나 슈르레아리즘을 얼마쯤 옮겨다 제것을 보텐 李箱의 시도 30년대에서 머리를 들고 지금까지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는 지적 경향의 시다. 그러나 李箱의 시가 주지적 경향의 시가 되는 이유는 그 내용이나 표현 수법에 있기보다는 그 시창작의 방법론을 규정한 철학적 동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다이즘이나 슈르레아리즘은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오히려 反知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가 어찌하여 非合理的인 방향을 취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근원적인 비평정신에 있어서 그것은 역시 주지적이거나 아니 할 수 없다. 슈르의 작품이 현대시에 끼친 功過는 반반이라 할 수 있다. 聯想을 비약적이다 못해 무쾌도적으로 확대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만큼 시의 이미지를 혼잡하게 만들어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한국 현대 시단에 끼친 슈르의 공과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사정과 다를 것이 없지만, 수준이 열은 한국의 시단이고 보면 그 혼잡과 무의미는 치열하다.

한국의 현대시가 보여주는 지적 내용의 다른 하나로서 가장 진실한 모범을 우리는 金玼燮

과 그와 범주를 같이하는 시인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金玠變의 시의 특질은, 초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시의 내용과 형식에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그 어느 한편에만 치우치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느 한 사상이나 정신만을 추구하여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자유롭고 광범하고 다채로워 그의 시정신을 붙잡아 무엇이라고 한 말로 꼬집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그의 모든 시작품엔, 단순한 감각이나 소박한 자연을 대상으로 삼는 작품에서까지도 반드시 작자가 포회하는 어떤 관념이 스며들거나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작은 못가에

푸른 하늘을 거느리고

그대와 함께 앉았으니

꽃은 물을 향하여 피고

고기는 구름을 따라 놀더라.

(『풍경』 전편)

이 시의 마지막 두 줄의 표현은 단순한 풍경의 묘사 같으면서도 온전한 묘사만은 아닌 작자의 무엇인가의 志向을 느끼게 한다. 「生の 根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와 같이」(『해바라기』의 一節)와 같은 표현에서도 이 시의 그와 같은 관념성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그의 작품 가운데는 그의 이와같은 관념을 술회하기 위하여 자연의 사물을 소재로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해바라기』도 그렇지만 『흙』과 같은 작품은 그 좋은 예가 아닐까 한다.

「첫번 꿈에서 離脫된 마지 못한 因果로

예전 산마루에 누운 抽象의 精靈을 그리며」

(제 2 편)

「出生을 기다리던 胎動의 첫 아픔처럼

문득 衝擊된 感動에 놀라 壁은 무너지며

過去를 뒤우치던 부드러움은 터져서

原罪의 가슴에 솟는 한 가닥 샘물로 간다」

(제 6 편)

『憂愁』와 같은 작품에는

「물결은

발아래 바위에 부딪쳐서 출렁이나니

自由는

永遠한 憂愁를 또한 이 國土에 더하노라]

(제 3 편)

와 같은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관념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지적해 낼 마름 어떤 현실적인 문제성을 지닌 것도 아니다. 개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나라』나 『憂愁』와 같이 그가 일생을 통하여 견지하고 그 때문에 다년간 옥고를 치루기까지 한 민족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암시적으로 혹은 뚜렷이 술회한 작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밖의 많은 작품들에서 그가 술회하는 관념의 정체를 붙잡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인가, 그의 생명의 출발처요 또 귀착지인 정신의 고향이 있는 것 같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처럼 그에게도 시정신의 어떤 근원이 있는 것만은 그의 작품마다에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원은 가장 진실되고 정의롭고 건강하고 정당한 피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그의 것을 그는, 「오 흙의 靈魂이여」에서 이와같이 노래한다.

나는 붉은 太陽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저 높은 봉우리에 깃든 孤獨을 즐긴다.

나는 그 봉우리에서 荒野에 달음친
산줄기의 역센 힘을 가슴에 받는다.

나는 黃土 언덕 좁은 구비를 돌아
험한 고개로 올라간 길의 情熱을 思慕한다.

나는 비인듯 蒼蒼한 空間 넓은 벌판
이름 모를 萬生의 衝動속에 서서

몸을 바쳐 누구에게로 가까이
그 길을 걸어 가는가 오 흙의 靈魂이여

(전편)

또는 「이 어두운 時間을」에서는

나는 이 쓸쓸한 땅에서
꽃과 香氣의 根源을 찾으리라

(제 2 령)

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와같은 시내용의 관념성은 배지 못할 관계에서 표현 형식에 적지 아니 물을 일으키게 한다. 맨 앞에서 미리 지적하여 둔 바와 같이, 그의 시표현에는 적지않은 관념어의 삽입과 함께 추상성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이 점은 시표현상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성격의 시가 갖지 않을 수 없는 시 표현상의 고충으로도 이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말의 성격상 일어날 수 있는 결점으로 까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감각적인 시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발달한 우리말의 感覺語로써만 그 표현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다. 그 좋은 실예가 鄭芝濬의 시와 같은 것이다. 芝濬은 아직까지는 우리 말의 극치에 도달한 시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芝濬의 언어는 감각을 표현하기에만 만족한 언어라는 점에 착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芝濬의 그러한 언어로써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을 결코 나타낼 수는 없다. 만일 芝濬이 사상이나 관념의 시인이었다면 芝濬은 결코 우리가 읽는 芝濬의 그러한 언어를 쓰지도 않고 또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단순한 자연대상의 시라면 40년대에 있어 靑鹿派 시인들이 쓰던 순수한 우리 말이나 素月の 언어로써 표현의 완벽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상성을 갖되 소박하고 懷古의인 것이라면 徐廷柱의 독특하고 세련된 언어로써 표현의 목적을 얼마간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사상성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데는 아무런 典型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觀念語란 우리말의 感覺語와는 달라 그 대부분이 外來語, 그 중에도 그 대부분이 漢字語로 되어있다. 현대적 의미의 복잡한 사상성을 표현해야 할 새로운 우리말의 시인들이 첫번째로 부닥쳐야 했던 난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말의 觀念語의 빈약내지 불충분이었다. 그러한 실예를 金珖變의 시에서 볼 수가 있으며 또는 모더니즘의 시에서도 볼 수가 있다.

모더니즘과 金珖變의 시는 내용이나 언어구사에 있어 상당한 차이는 있으나, 漢字語로 된 觀念語를 적지 아니 쓰는 점에 있어서는 다 같이 표현에 있어 거칠고 추상적이라는 비평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비평의 표준을, 芝濬의 언어나, 靑鹿派의 언어나 혹은 徐廷柱의 언어에다 두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어에 관한 막심한 시대착오이다. 시는 형식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의 변혁에 따라 그 표현이 변하게 되어 왔다. 한국의 현대시도 지적인 내용으로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그 표현 언어들은, 단순한 감각 중심이나 자연 대상이나 회고적 취미의 언어와는 달라질 수 밖에 없었지만, 달라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한국의 언어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단순하지 않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金琬燮의 시표현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불만이 전혀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유능한 시인이라면 모름지기 불만을 가급적 없애기 위하여 보다 더 어려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다행이도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자취를 최근에 발표되는 金琬燮의 시에서 발견하고 한국시의 일면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의 시는 지금 만년에 이르러 더군다나 病苦를 무릅쓰고 이 표현상의 불만을 없애기 위하여 스스로 깨달은 듯 매우 세련된 솜씨로 정진 승화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그의 『성북동 비둘기』와 같은 작품에서 그러한 좋은 모범을 볼 수 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들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세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먹을
 넘직한 마당은 커녕 가는 데 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가서
 금방 따낸 돌 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랑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思想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성북동 비둘기』 전편)

이러한 시에는, 그의 정신의 특질인 근원예의 향수와 사회비평 의식 같은 것이 역력히 백동하면서도, 그리하여 현대적 의미의 관념을 간직하면서도, 관념어의 구사나 표현의 추상적인 부분은 말끝이 가시어 구체적인 표현의 미를 세련된 솜씨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은 관념을 내용으로 삼되 현대성을 잃지 않으려는 다른 시인들에게도 좋은 모범과 참고가 될 만한 것이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神을 뵈신다

(『山』 제 4련)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산의 숭고함과 그 관대하고도 다사로움을 만족하게 느끼게 된다.

산은 답답하면 솟아서 높은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가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溪谷이 된다.

(『山』 제 7련)

또 이와 같은 표현에서도 산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산의 자세로써 인간의 자세를 암시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의 시 「無題」에서는

하늘과 나라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서
 나라를 주신 분의 뜻이 흠에 서지 못하니
 넘어질 때 붙잡을 머리칼 하나 하늘에는 없다.

(제 5련)

라고 민족과 사회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로부터 오게 되는 허전한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넘어질 때 붙잡을 머리칼 하나 하늘에는 없다」라는 적절한 표현은 실망으로 가득찬 그의 막막한 심경을 더 할 나위없이 실감하게 하는 뛰어난 귀절이다.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여실한 표현이 있지만 그 넓고 넓은 하늘에 지푸라기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는 머리칼 하나도 없다는 표현은, 막막한 심경을 형상화함에 있어 표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몸은 늙어가지만 그의 시는 점점 더 건강 해지고 있다.

시의 대상을 한 주제에만 집중하던 시인이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전환도 힘에 겨워, 무력하게 만년을 지내는 것을 우리 시단에서는 가끔 보게 된다. 그러한 시인들에 비하면 金玼燮은 오히려 만년에 이룰수록 더욱 빛나고 왕성하고 원숙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그의 시의 대상은 보다 광범하고 자유스럽고 산만하여, 어느 한 과제로 집중하여 독특한 추구의 매력을 풍기던 시인만큼은, 비평가나 독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일관된 추구의 대상이 없는 만큼 막다른 골목도 없고 그로부터 올 수 있는 권태도 없다. 보다 광범하게 보다 자유를 누리면서 삶의全般에서 가치를 빼 내어 보다 풍부한 정신의 영양을 독자들에게 끼쳐주고 있다. 이 점이 오히려 시인 金玼燮의 매력이며 그의 시를 더욱 왕성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 Outline of the Essay on Kim Kwang Seop, Poet

Kim, Hyun-seung

Summary

Kim Kwang Seop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oets still living in our country, considering both his poem-writing career and his present age.

The history of his life as a poet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the beginning stage of his poem-writing career is about 1930's.

In the period he presented "GO DOK-Solitude" to which all poetical circles had drawn attention.

The style of expression in this poem was intellectual. Through this intelligence, he recited a powerless and helpless loneliness with a calm, a melancholy and a coolness.

The Second period is for about 20 years. Ranging from 8.15 Liberation to the end of 1950's.

During this period, he was engaged in the government post such as a secretary to president. His poem-writing during this period was open to the inactive state in terms of its quantity and quality.

Even at this time, however, he displayed his talent through his creation of five poem such as "HAE BA RA GI-Sun flower"

The third period of his poem-writing is around his 60th birthday when hyperpiesia made him faint, and his health suffered a fatal blow.

His amazing mental power and will power, however, overcame his physical weakness and difficulty. He started to write his poem-writing more actively than former days, and finally created an excellent poem, "SEONG BUK DONG DOVE".

The poem is not only the excellent one in his whole life, but also a prominent work in the history of a half century of modern poem of Korea.

He used rather frequently ideological language of Chinese letter, which characterizes his poetic diction.

Some of poetical circles indicate his characteristic in poetic diction as a defect.

The poem whose contents are centered upon the damage and grief of the civilization was epoch-makingly commanded only with concrete languages.

A poet is an owner of powerful mentality all over the world.

When he is physically weak, his mentality becomes more powerful.

This dynamic is likely to be interpreted as a compensation of mental powerfulness for physical weakness.

Among poets of Korea, Kim Kwang Seop in the kind of poet who supports the dynamics mentioned above.